

성경적 세계관과 의료윤리 : 생식의 윤리를 중심으로

김 상 득*

1. 들어가는 말 :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와 의료윤리'란 주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하나,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의료윤리의 물음에 관한 기독교적 답변이 무엇이냐의 관점이다. 둘째는 역으로 의료윤리 물음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관점이다. 셋째는 기독교적 종교 교육이 의료윤리를 교육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다. 필자는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점은 열린 물음으로 남겨두고 주로 첫째 관점에서 의료윤리 물음에 접근하고자 한다.

기독교적 답변을 추구하자면,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전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의료윤리의 물음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밝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의 물음이다. 이 두 물음 각각을 해명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물음이 아니다. 우선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진 신학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 신정통주의, 과정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등 그 신학적 흐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어느 신학의 관점을 채택 하느냐에 따라 의료윤리 물음 자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물음에 대한 답변 역시 달라질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가능한 한 특정 '신학의 옷'을 입지 않은 성경적 입장에서 의료윤리 물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즉, 필자는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물음에 접근하는 '성경적 세계관' (biblical world view)의 입장에서 의료윤리의 물음을 다루고자 한다."

성경적 세계관은 한 마디로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관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1) '성경적 세계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옮김, 「창조 타락 구속」(서울:IVF, 1995)을 참조하라.

가 회복되었다. 이를 우리는 구조(structure)와 방향(direction)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즉, 이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세계 구조는 선하다. 그러나 그 방향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속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는 곧 의료 행위 역시 하나의 구조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동시에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은 의료 관행이 구속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데 그 윤리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의료윤리의 물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의료윤리를 필자는 인간의 개체 발생 순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자 한다. 인간은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죽는다. 여기서 우리는 주요한 세 가지 계기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남, 삶, 그리고 죽음이다. 태어남과 연관된, 체외수정, 성 선택 등의 의료윤리는 이미 우리에게 '생식의 윤리'(reproductive ethics)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안락사, 심폐사/뇌사 논쟁 등 죽음과 연관된 의료윤리를 '죽음의 윤리'(ethics of death)로, 그리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 유전자 치료 등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인간 삶과 연관된 의료윤리를 진료의 윤리(ethics of therapy)라 각각 부르코자 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종교이다. 인간과 인간 관계의 기본 윤리는 사랑이다. 물론 유전자 치료의 도덕성 물음과 같이 성경적 답변이 애매한 물음들도 있지만 진료의 윤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물음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정신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있으며,²⁾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죽음의 윤리 물음도 기독교 의료윤리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 이지만 지면의 제약에 따라 논의로 하고자 한다. 이 소고에서 필자는 생식의 윤리, 그것도 체외수정의 윤리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하나님 놀이와 의료윤리

생명은 하나의 신비이다. 기독교는 이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달로 그 비밀의 껍데기가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인간은 드디어 생명의 탄생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게 되었다. 특히 인간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보조 생식술의 발전은 눈부시게 발달하여 불임부부에게 회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보조 생식술과 관련되어 적지 않은 생식의 윤리 물음이 제기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면

2) 실제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 기독교인의 진료관을 잘 설명하고 있다(누가복음 10:20-37). 이 구절과 의료윤리의 관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민철, "성경적 생명의료윤리", 박상은 역음, 「생명의료윤리」(서울:한국누가회문서출판부, 1999), pp.56-66을 참조하라.

서 정작, 기독교인의 삶의 규범인 성경은, 임신중절에 관한 몇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이런 윤리적 물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부 극단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은 보조 생식술 자체를 비 기독교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신약성경 4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3대 사역³⁾ 중 하나가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임을 받아들이면 이는 지나친 주장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질병을 치유하는 의술 자체는 하나의 선한 구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긴 문화명령의 하나이다.⁴⁾ 문제는 이 의술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 내지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사용되고 있느냐의 물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놀이(playing God)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보조 생식술 자체를 부인하는 극단적 입장을 배제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모든 보조 생식술을 사용할 절대적인 ‘생식의 자유’를 지닌다는 또 다른 극단적 입장 역시 기독교의 테두리 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나, 그 선물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의 지배를 뜻하기 때문이다.⁵⁾

보조 생식술은 생명을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에 조작하는 작업이다. 기독교인의 딜레마는 여기서 발생한다. ‘생명의 조작’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 말고 ‘하나님 놀이’에 해당되는가가 논란거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말의 ‘조작’이란 개념 자체가 부정적 뉘앙스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를 ‘불임 치료’라고 부른다면 그 뉘앙스는 전혀 달라진다. ‘조작’과 ‘치료’의 구분이 확연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의 예로써, 체외수정을 생각해보자. 의학적인 이유에서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 여성도가 자기 남편과 합의하여 불임치료센터를 찾아 체외수정을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은 성경적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성의 자궁에 이상이 생겨 대리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없다면 대리모를 통한 자녀 출산은 성경적인가? 어떤 기독교 여성이 이런 불임부부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궁홀’의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대리모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가?

3)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 선포, 교육, 그리고 질병 치유로 신학자들은 이해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그리고 질병 치유에 관한 신약신학적 이해는 김지철, “예수의 치유”, 『교회와 신학』 제28집(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1996), pp.194-216를 참조하라.

4) 창세기 1:27-28의 말씀을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으로 해석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지기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맡기셨다. 질병 치유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책임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5) J.S.Grabowski, “Made Not Begotten : A Theological Analysis of Human Cloning”, *Ethics & Medicine* 1998 14.3, p.70.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까지가 조작인가? 이 물음은 '하나님 놀이'라는 개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 놀이란 개념은 물리적 우주 내지 도덕 세계에는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신이 제정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 질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가치를 끌어들이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혼과 가족이란 개념이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보다도 결혼과 가족이란 개념이 더 먼저 나온다. 물론 구약성경은 일부다처제를 용인하고 있지만, 자녀 출산은 어디까지나 결혼과 가족이란 제도 안에서의 사건이다.⁶⁾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차이와, 일부일처제 하의 이성간 결혼 테두리 내에서의 자녀 양육은 하나의 규범이다."⁷⁾ 비록 그것이 궁핍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대리모 노릇을 하거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바로 '생물학적 어머니가 누구이냐'의 물음을 야기하여, 가족 질서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성경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그러나 배우자간 체외수정은 이런 가족 제도의 질서와 어긋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또 다른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체외수정이 성 관계없는 자녀 출산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은 성 관계와 자녀 출산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결혼-성 관계-임신-출산-양육>이 하나의 고리로서 분리 불가능한가? 배우자간 성 관계를 통한 자녀 출산이 하나님의 법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 아

6) W.Grey, "Playing God",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3 (New York:Academic Press, 1998) p.525.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이'란 개념은 다음 몇 가지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

- 인간 존재는 생명의 비밀이나 신비를 탐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 인간 존재는 생명의 시작이나 끝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이런 결정은 신적 주권에 속한다.
- 인간 존재는 오류가능하며, 행위에 대한 평가 역시 인간의 좁은, 부분적인 관점-흔히 이기적인 관점-에 따라 이루어지기 쉽다.
- 인간 존재는 행위에 대한 지식, 특히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 이는 신적인 전능에 속하는 것이다.
- 인간 존재는 신적인 전능의 표지인 행위의 결과나 혹은 일련의 행위 과정의 결과를 통제할 만한 힘을 지니지 못한다.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Religious Perspectives", M.C.Nussbaum & C.R.Sunstein, ed., *Clones and Clones*(New York:W.W.Norton & Company, 1998), pp.168-169.

7)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자녀 출산이 성경 곳곳에 나타난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창세기 16장),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강간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사무엘하 11장). 그러나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야곱의 경우이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외에 이들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으며,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다(창세기 29장-30장). 이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의 물음이 제기되지만, 근본적으로 여종들은 단순한 씨받이가 아니라 이들 자녀의 어머니로 등장하며, 이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가족 제도 내에서의 자녀 출산만을 허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무런 답을 주고 있지 않다. 단순히 성경이 '하라'고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간 체외수정은 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경이 '하지 말라'고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외수정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3. 배아의 도덕적 지위 물음

그러나 체외수정에는 또 다른 윤리적 물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체외수정은 인간 배아-엄밀히 말해 이는 착상 이전의 전 배아(pre-embryo)를 말한다-에 대한 실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인간의 출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의 물음을 낳는다. 사실 현대 의료윤리에서 이보다 더 뜨거운 논쟁거리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물음은 이성적인 합리적 논변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관적인 물음이다.⁸⁾ 따라서 어떤 세계관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 각국은 대체로 수정 후 14일까지의 전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착상 전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는 인간의 개체성은 착상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주장에 그토대를 두고 있다.⁹⁾

논의를 위한 가정으로, 수정 순간 인간 개체성(A)이 확립된다고 하자. 그런데 생물학적 과정으로 착상 시에 이 수정란이 일란성 쌍둥이 배아로 착상되었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두 아기 B와 C가 출생하게 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 개체가 두 개체가 되었다는 말이 된다.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쌍둥이화 현상은 착상 때 일어나며 그 이후 그 개체는 고정 불변적이다. 이는 결국 전 배아는 미결정 단계로서 여러 개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¹⁰⁾ 원시선이 출현해야 비로소 하나의 개체가 형성되는데, 14일 경 착상 때 이 원시선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전배아는 비록 인간 유전자를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의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로서 인간의 개체성 성립 여부에 그렇게 중요한 도덕적

8) C. Ben Mitchell, "A Protestant Perspective on Cloning", *Ethics and Medicine* 1998 14.1, p.29.

9) 제임스 사이어는 세계관의 기본적 물음을 7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이다. James W. Sire, *Disciplines of the Mind*, 정옥배 역, 『지성의 제자도』(서울:IVF, 1995), pp.33-34.

10)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즐고, "임신중절: 태아의 도덕적 지위", 『신앙과 학문』 제1권 1호(서울:기독교학문연구회, 1996), pp.101-119을 참조하라.

11) M. Mori, "On the Concept of Pre-embryo: The Basis for a New 'Copernican Revolution' in the Current View about Human Reproduction", J. Harris and S. Holm, ed., *The Future of Human Reproduction*(Oxford: Clarendon Press, 1998), p.45.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인간 개체의 출현을 하나님의 주권이란 관점에서 파악한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였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다(창세기 1:27). 신약성경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예속시키고 있다(요한 복음 1:3). 비록 남녀를 통해 인간 종족을 보존시키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근거에서, 성경학자들은 인간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인간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적 인간관에서 그 단초를 찾으려고 시도하여,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이란 개념을 연구하여 왔다. 대체로 의료윤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독교윤리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에서 인간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 해석한 다음, 인간이 언제 그 요소를 지니느냐의 물음으로 논의를 진행시켰다. 소위 영혼의 주입 시기에 관한 모든 논쟁들은 이런 접근법의 산물이다.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형상' (*tselem*)이란 단어는 어원적으로 통치자의 대리인 내지 대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인간이 어떤 본질적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대리인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이성적 사유를 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영혼을 지니는 등의 모든 특징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지, 그 역이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¹²⁾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뿐 아니라 생명의 보존자로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속에서 개별 인간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 역시 비록 태어나지 않은 생명체라 할지라도 보존하도록 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¹³⁾

12) D.P.O' Mathuna, "The Bible and Abortion : What of the 'Image of God' ?", J.F.Kilner, N.M.de S.Cameron & D.L.Schiedermayer, ed., *Bioethics and the Future of Medicine : A Christian Appraisal*(Grand Rapids, Michigan:William B.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p.202.

13) 이에 관한 성경구절은 창세기 25:21-26, 욥기 10:8-12, 시편 139:13-16, 예레미야 1:5, 마태복음 1:18, 누가복음 1:31, 로마서 11:36 등을 참조하라. 특히 예수의 탄생에서 삼위일체의 한 분인 성령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한다. 이는 곧 XX 염색체가 아닌 XY 염색체를 하나님께서 결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XY 염색체는 착상 이전에 이미 결정되기에 이를 정상적인 임신에 비교하면, 인간은 착상 이전 수정 순간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조인래, "인간복제의 방법과 역사", 박상은 엮음, 『생명의료윤리』, p.267.

다른 한편, 태아의 생명적 가치를 이미 현존하는 사람의 생명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해석될

이렇게 되면,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 생명을 죽이는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체외 수정술은 비록 논리적 필연은 아니지만 배아의 죽음을 동반한다. 실천적으로 체외수정은 그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잉여 배아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물음은 체외 수정술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임신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자연 임신의 경우 수정란 중 약 25% 정도는 월경 시에 자연적으로 자궁 밖으로 배출되며, 수정란 중 약 30% 정도만 아이로 출산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 유산의 경우 수정란의 폐기는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체외수정 시 잉여 배아는 다분히 인위적으로 파기되거나, 실험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4. 자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문제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간 체외수정에 반대하는 기독교사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리 혼하지 않다.¹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한 현실적 타협인가? 이는 하나님의 두 속성 가운데 하나인 사랑에 그 토대를 둔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자유를 구성하는 이웃 사랑은 체외 수정술과 같은 유전학적 연구가 계속 발전되어 선행에 봉사할 수 있도록 명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⁵⁾ 사랑의 명령에서 볼 때, 기독교사들이 적어도 배우자간 체외수정을 시행하는 일은 선행 원칙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유의 체외수정에는 반대하면서 유독 배우자간 체외수정이 기독교적으로 허용될 수 이유는 이미 앞에서 밝힌 이유 외에도 또 다른 논거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중효과의 원리(principle of double effects)이다. 이 원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잉여 배아의 문제를 예견은 하였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연구를 목적으로 한 배아 실험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¹⁶⁾ 단지 체외수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 있는 성경구절이 구약 출애굽기 21:22-25에 나타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이를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낙태 해석' (miscarriage interpretation)이라 부른다. 그러나 여기 나타나는 '낙태'란 개념은 구약신학적으로 '조산'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개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승구,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신학적 논의',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연례집」(미간행, 서울대학교병원내 함춘기독교봉사관, 1998), pp.16-18를 참조하라.

14) 의료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미국 기독교사치파의사회는 대리모 임신이나 배아 실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배우자간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Joe Mollhaney, "Christian Ethics and Reproductive Biotechnology", 제이 홀맨 역음/박재형 옮김,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p.65.

15) Ted Peters, *Playing God?*(New York and London:Routledge, 1997), p.25.

16) 이에 대해 비기독교 과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임승차자' (free rider)라고 비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우자간 인공수정이 가능하하면 배아 실험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데 배아 실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발생하는 배아 파괴만이 이중효과의 원리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임신중절이 정당화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기독교사는 체외수정 시 가급적 잉여 배아가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체외수정을 하는 동기의 물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 내지 공의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을 강조한다. 실제로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친구약에 나타난 윤리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이다(마태복음 22:34-40).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배우자간 체외수정은 기독교적으로 용납될 수 있으며, 기독교 역사 시 불임부부의 아픔에 동참하는 긍휼의 마음에서 체외수정 의술을 베풀 수 있다. 달리 말해, 비록 배우자간 체외수정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자녀를 갖고자 한다면 이는 성경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자녀는 부모가 자아 도취적으로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수단(narcissistic means of self-definition)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¹⁷⁾ 이런 의미에서 생식은 자신의 뜻 구현의 하나로 간주되어서 안 된다. 오히려 자녀 출산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권적으로 부여한 언약적 책임이다. 자녀는 우리의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데 이용되는 상품이 결코 아니다. 체외수정 의술이나 임신중절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염려하는 바는 바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자의적 태도’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인간의 신성성 내지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욕구에 의해 그 가치가 부여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체외수정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생명 복제술, 특히 인간 복제의 물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생명 복제술은 체외수정을 전제하기에 체외수정이 지닌 모든 윤리적 문제를 지닐 뿐만 아니라, 특히 생식용 복제는 무성생식이란 점에서 또 다른 독특한 물음을 야기한다. 인간 복제는 생식을 혼인 및 남녀 성 관계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생식을 모든 관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¹⁸⁾ 그래서 이는 부나 모 중 한 쪽 부모의 유전자만 물려받는 아이를 만들어 내기에 성경이 강조하는 가족질서를 파괴시킨다. 무엇보다 인간복제에는 체외수정보다 훨씬 더 강한 인간의 조작이 개입된다. “우리가 낳은(begotten) 자녀는 우리와 같으나 우리가 만든(made) 것은 우리와 같지 않다. 우리가 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기독교 과학자들이 배아실험을 열심히 하여 배아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까지 체외수정술이 발달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기독교인들이 취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 의사들이 겪는 하나의 딜레마이다.

17) C. Ben Mitchell, "A Protestant Perspective on Cloning", *Ethics and Medicine* 1998 14.1, p.29.

18) R.A. Mohler, "The Brave New World of Cloning: A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여기서서는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Religious Perspectives", p.174에서 인용.

든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의 산물로서 그 운명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게 된다.”¹⁹⁾ 그래서 복제된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런 인간에게 그 ‘만든 자’가 인간의 신성성을 존중할지 의문시된다. 게다가 생식용 복제는 개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²⁰⁾ 왜냐하면 유전적 자아동일성(genetic identity)은 개체성의 본질적 요소인데, 복제된 인간은 그 복제자에 의해 원초적으로 이런 독자성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식용 개체 복제는 용납되기 어렵다. 그리고 연구용 내지 치료용 배아 복제 역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수용하기 어렵다. 이는 전적으로 배아를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배아 역시 한 인간 생명체로 보는 기독교는 이런 수단적 사용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²¹⁾ 더군다나 장기 적출이나 그밖의 의학적 목적을 앞세운 인간 개체의 복제는 더더욱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5. 맺는 말 : 목회적 돌봄

필자는 지금까지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식의 물음에 관한 기독교 윤리를 살펴 보았다. 기독교는 의료윤리의 물음을 하나님의 주권, 창조 질서의 회복(특히 가정과 결혼의 질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생식의 윤리뿐만 아니라 진료의 윤리와 죽음의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안락사나 DNR(Do-Not-Resuscitate) 등의 물음에 있어서 기독교는 인간이 죽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심지어 인간이 겪는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확신이 설 때 온갖 현대 의학의 힘을 빌려 살려고 발버둥치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다.

19)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USA), "Religion-Based Perspectives on Cloning of Humans", *Ethics and Medicine* 1998 14.1, p.18.

20) 조프리 브라운 박사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생식에 있어서 인간 존재에 관한 (비치료적인) 유전적 조작-이에는 인간복제도 포함한다-은 3가지 이유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전적 조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1)인간의 자율성을 부인하며, (2)생명존중의 요구를 무시하며, 그리고 (3)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맺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기본적인 인간 관계를 증진하기보다는 파괴시킨다. R.G.Brown, "Clones, Chimeras, and the Image of God : Lessons from Barthian Bioethics", J.F.Kilner, N.M.de S.Cameron & D.L.Schiedermayer, ed., *Bioethics and the Future of Medicine : A Christian Appraisal*, p.244.

21) 개신교 입장에서 메일랜드(Gilbert Meilaender)는 한정된 여건 하에서의 연구용 배아복제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더프(Nancy Duff)는 배아 연구의 긍정적 이득이 분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배아 연구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주장한다.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USA), "Religion-Based Perspectives on Cloning of Humans", *Ethics and Medicine* 1998 14.1, p.19.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료윤리 물음에 관한 기독교적 입장을 경직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복음의 종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강간에 의한 임신을 그만두고자 하는 어린 소녀에 대해 현실적으로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그 소녀나 예비 아기를 돌보려는 고통 분담의 자세를 갖추지 않은 채 그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비 성경적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아들을 낳지 못해 시부모로부터 온갖 구박을 당하고 있는, 이미 딸을 둘 가진, 여신도가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 성 선택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교회와 교인들이 남아선호사상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면서 이 여인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욕을 하는 것 역시 성경적인 태도라 보기 어렵다.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은 기독교 윤리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동일시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법(law of God)에 그 토대를 둔다면, 목회적 돌봄은 하나님의 은혜(grace of God)에 그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의료윤리 물음에 대해 성경적인 답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윤리에 복종하고자 몸부림쳐야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의료윤리 물음으로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비난에 앞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과 용서 그리고 관용의 미덕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색인어 : 성경적 세계관 · 의료윤리 · 하나님 놀이 · 체외수정 · 하나님 형상

22) Dennis P.Hollinger, "Doing Bioethics:Christian Ethics, Pastoral Care and Public Policy", J.F.Kilner, N.M.de S.Cameron & D.L.Schiedermayer, ed., *Bioethics and the Future of Medicine : A Christian Appraisal*, p.157.

=ABSTRACT=

Biblical World View and Medical Ethics : on the Reproductive Ethics

KIM Sang-deug*

The theme of 'Christianity and medical ethics' can be studied from various perspectives. However, I will discuss it from a point of biblical world view, focusing on the reproductive ethics. According to the biblical world view, God created the world and the rest of His creatures in it, so the structure of the world is originally good. Creatures can be directed into two ways ; God or idols.

As Jesus cured many diseases, curing people using medicine is not contrary to God's will. Especiall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uch as IVF enable sterile couples to be pregnant. But the Bible says that human life belongs to the sovereignty of God. Children are to be viewed as a divine gift not a narcissistic means of self-definition.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sexual differentiation and the place of childbearing within the matrix of monogamous heterosexual marriage is normative. So human cloning, artificial insemination of donor, surrogate mother and other reproductive technologies are regarded as playing God. Human beings are free. But man's freedom is within God's law.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e morally permissible unless they break the order of marriage, family and marital relation. IVF or artificial insemination, using the gametes of a husband and his wife, is morally permissible, for it does not violate this order.

But it brings out the problem of moral standing of pre-embryo. For many embryos are made just for one fertilized egg to succeed in becoming implanted on the uterus of woman. Rest of the spare embryos are usually destroyed or experimented for research purposes.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the existence of human being begins from the moment of fertilization. Human being itself is *imago Dei*. That is, a pre-embryo has sufficient moral standing. However, IVF or artificial insemination of a married couple is beneficent to infertile couples. Jesus commands us, "Love your neighbor". If we accept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s, it is morally permissible for us as Christians to

us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uch as IVF or artificial insemination only within the order of marriage and family. Finally, Christian ethics and pastoral caring, though intimately correlated, can be separated and should be so. Pastoral caring is grounded on the grace of God.

Key Words : Biblical World View, Medical Ethics, Playing God, IVF, *imago Dei*

*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